

【논문】

## 직접적 실재론과 착시현상

윤 보 석

【주제분류】 심리철학, 분석철학

【주요어】 착시, 직접적 실재론, 경험, 대상, 브루어, 굽타

【요약문】 브루어는 직접적 실재론의 틀 내에서 착시 경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는 재현 주의와 대비하여 대상 이론을 옹호한다. 만일 브루어의 직접적 실재론 옹호가 성공적이라면, 착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감각소여와 같은 대상을 상정할 필요성은 아예 제거 될 것이며 따라서 감각소여이론 등이 봉착하는 여러 인식론적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브루어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브루어의 이론의 배경과 문제점을 지적한다. 후반부에서는 브루어의 접근이 가지는 올바른 직관을 보존하되 그의 접근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후반부의 목적을 위해 굽타의 이론을 소개하고 옹호할 것이다.

### I. 서론

경험의 대상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정리하기 위해 브루어가 제시한 방식을 차용하기로 하자. 브루어는 다음 세 문장으로 구성된 비일관적인 문장 집합을 고찰한다.<sup>1)</sup>

(1) 물리 대상은 마음-독립적이다.

---

1) Bill Brewer, "Perception and its objects", p. 87.

- (2) 물리 대상은 직접 지각의 대상이다.  
 (3) 직접 지각의 대상은 마음- 의존적이다.

이 문장 집합은 비일관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최소한 한 문장은 거짓이어야 한다. 버클리나 같은 관념론자들은 (2)와 (3)을 받아들이고~(1)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관념론에 대항하여 러셀과 직접적 실재론자는 공히 (1)을 받아들인다. 그들의 차이는 러셀이 (3)을 받아들이고 따라서 (2)를 부정하는 반면, 브루어와 같은 직접적 실재론자는 (2)를 받아들이고 따라서 (3)을 거부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2)를 부정하는 다양한 논거들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직접적 실재론자는 최소한 (2)를 거부하는 논증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

직접적 실재론(direct realism)에 따르면 마음- 독립적 외적 대상이 우리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진다. 사실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반성해 볼 때 우리는 주변 물리적 환경을 직접 대면하는 것 같다. 맥도웰의 유명한 구절에 따르면 경험은 “실재로의 열림(openness to the layout of reality)”인 것처럼 보인다.<sup>2)</sup> 그렇다면 왜 전통적으로 러셀을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직접지각의 대상은 감각소여(sense-datum)나 인상(impression)과 같은 내적이고 심적인 대상들이라고 생각하였던가? 한 대표적인 근거는 착시 논증(The Argument from Illusion)이다. 착시 현상은 대상 O가 F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F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물에 잠긴 막대기는 굽어 있지 않는데도 굽은 것처럼 보인다. 착시 논증은 이러한 착시 현상에서 출발하여 실제로 굽어있는 어떤 주관적 대상의 존재를 도출한다. 착시 논증의 마지막 단계로서 착시가 아닌 정상적 지각의 경우에도 경험의 대상은 주관적 대상이라는 일반적 결론이 도출된다.

착시 논증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마지막 일반화 단계를 부정하는 비판이 가능하다. 즉, 비록 착시나 환각의 경우 마음- 의존적인 대상이 우리의 마음에 주어졌다고 해도 정상적인 경험의 경우는 마음- 독립

2) John McDowell, *Mind and World*, p. 26.

적 대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브루어는 직접적 실재론을 옹호하는 그의 저술에서 착시 논증에 대한 다른 비판을 발전시킨다. 브루어는 정상적 경험뿐 아니라 착시나 환각도 그 대상이 마음-독립적인 물리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모든 경험을 대상과의 관계로 보고 경험의 주관적, 현상적 성질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대상의 성질에 의해 설명된다고 해도 반드시 경험의 대상이 주관적인 대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물에 잠긴 직선 막대기를 볼 때 그 막대기가 아닌 굽은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막대기뿐이다. 그렇다면 그 막대기가 **굽은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브루어는 직접적 실재론의 틀 내에서 그런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만일 브루어의 직접적 실재론 옹호가 성립한다면, 지각을 이해하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감각소여와 같은 대상을 상정할 필요성은 아예 제거 될 것이며 따라서 감각소여이론 등이 봉착하는 여러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브루어의 시도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브루어의 직접적 실재론의 배경과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것이 2, 3장의 작업이다. 4, 5장에서는 브루어의 접근이 가지는 올바른 직관을 보존하되 그의 접근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후반부의 목적을 위해 굽타의 이론을 소개하고 옹호하고자 한다.

## II. 재현주의

브루어는 자신의 이론을 옹호하기에 앞서 막대기가 굽어보인다는 현상적 사실을 설명하려는 현대의 한 영향력 있는 이론을 비판한다. 브루어의 주된 비판 대상은 경험에 대한 재현주의적 접근(the representationalist approach)이다. 브루어와 마찬가지로 재현주의자들도 착시의 경우에 막대기가 아닌 실제로 굽은 어떤 특별한 내적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착시에 대한 재현주의에 따르면, 물에 잠긴 막대기를 보는 경험은 실제로 굽은 어떤 특별한 대상이 경험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은 단지 바로

그 일상적인 막대기를 굽어 있는 것으로 잘못 재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굽어보이는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재현주의자는 경험의 이러한 주관적 특성을 경험의 재현적 내용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경험의 주관적 특성을 “굽은 막대기가 있다”라는 재현적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착시와 주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실제로 굽은 막대기를 보는 정상적 경험도 “굽은 막대기가 있다”는 동일한 재현적 내용을 가진다. 착시와 정상적 지각의 공통적인 주관적 특성은 재현내용의 동일성에 의해 설명되며, 그들의 차이는 재현내용의 진리치의 차이로 귀착된다. 근본적으로 경험은 일종의 재현이다.

1장에서 소개된 브루어의 세 문장 (1), (2), (3)에 대한 재현주의의 입장은 무엇인가? 위에서 직접적 실재론자들은 (2), 즉, 물리 대상이 직접 지각의 대상임을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재현주의자도 (2)를 받아들이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답은 긍정적이다. 착시의 경우 물리 대상인 막대기가 재현되기는 하지만 막대기와 다른 어떤 대상이 의식에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여전히 물에 잠긴 막대기 자체를 본다. 이러한 지각이 다른 대상에 대한 지각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현주의는 경험의 주관적 측면이 근본적으로 대상 자체에 의해 설명된다고 하는 직접적 실재론의 주장과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재현주의에 따르면 막대기가 굽어보인다는 현상적 측면은 **막대기 자체의 성질**에 의해 설명되지 않고 그 막대기를 재현하는 **경험의 재현적 성질**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이다. 막대기가 굽어보인다는 것은 “그 막대기가 굽어있다”라고 재현하는 것이다. 사실 막대기 자체는 굽어있지 않기 때문에 막대기가 굽어보인다는 경험의 현상적 측면이 어떻게 막대기 자체의 성질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따라서 재현주의가 매력적인 선택지로 간주될 수 있다.

재현주의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아마 재현주의자들은 경험의 재현이 두뇌에 실현된 뇌신경학적 상태라고 간주할 것이다. 그런데 그 상태의 구조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경험적 재현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재현이라고 간주하는 사례들은 단어

와 문장과 같은 언어적 재현, 그림, 도표, 지도, 조각품 등과 같은 재현들이 있을 것이다. 경험은 어떤 형태의 재현인가? 정확히 그 재현의 성격이 어떤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전통적인 계산주의의 입장에서는 아마 언어적 재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고, 회화적 재현과 보다 유사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분석을 제시할 수 있다.

경험을 재현으로 볼 때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은 그 재현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다. 경험이 재현이라면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또한 많은 견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험적 재현의 내용은 개념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밀러-라이어 착시의 경우를 고려해 보자. 재현주의에 따르면 그 경험의 주관적, 현상적 성질은 “두 선의 길이가 다르다”라는 재현 내용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즉, 경험의 재현내용은 우리가 경험을 액면가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를 물음으로서 결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의 재현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경험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 “두 선의 길이가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이와 관련하여 재현주의자들 내에서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소위 비개념적 내용(non-conceptual content)을 옹호하는 철학자들은 경험이 가지는 재현내용을 개념적 능력과 독립되며 개념적 능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비개념적 내용을 옹호하는 철학자들은 경험적 내용은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훨씬 더 섬세하거나 상세하고(fine-grained), 개념적 능력을 가지지 않은 동물이나 아기들도 상당히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을 지적한다.

재현주의의 다양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브루어는 재현주의 전반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는 재현주의적 접근을 내용 이론(the Content View, CV)라고 부르며 내용 이론 일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비판의 한 근거는 재현 내용만으로 경험의 현상적 특성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밀러-라이어 착시에서 재현주의자들이 “두 선의 길이가 다르다”는 재현 내용을 상정한다고 해보자. 그러나 그러한 재현 내용은 경험의 현상적 성질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그 두 선의 길이는 특정한 차이를 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단지 길이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아마 재현주의자는 경험이 특정한 비개념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특정한 차이가 어떻게 재현되는가? 즉, 개념적 내용을 넘어서는 섬세한 재현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 가지 가능한 방식은 경험적 재현의 내용을 두뇌 상태의 정보적 성질로 설명하는 것이다. 즉, 내가 현재 책상 위의 열쇠를 보고 있을 때, 내 경험의 재현 내용은 나의 두뇌의 어떤 상태가 법칙적으로 연결된 외적 사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브루어는 재현주의를 아무리 수정, 보완하여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현주의자들이 경험의 내용에 충실하려고 하면 “모순된 내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밀러-라이어 착시현상을 고려해 보면 “두 선의 길이가 다르다”라는 재현내용도 있으나 동시에 “두 선의 길이가 같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선의 끝점들이 실제로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브루어는 밀러-라이어에 대한 통상의 심리학적 설명을 가정하고 있는 것 같다. 밀러-라이어의 두 선은 2차원적 평면에 놓여있는 것으로 볼 때 길이가 같아 보이나 두뇌가 밀러-라이어를 해석함에 있어 한 선이 다른 선 보다 멀리 위치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화살의 방향 때문에) 따라서 2차원적 평면에서의 두 선의 길이의 동일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선 한 선이 다른 선보다 길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sup>3)</sup>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지각체계는 “두 선의 길이가 같아 보인다”와 “두 선의 길이가 다르게 보인다”라는 두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모순된 내용의 문제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 피콕의 예를 활용해 보기로 하자.<sup>4)</sup> 가로수 길에 서서 당신으로부터 각각 10m와 20m로 떨어져 있는 그러나 실제로 높이가 동일한 두 나무를 본다고 해보자. 당신의 경험은 이 두 나무를 비슷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재현한다. 두 나무는 높이가 비슷하게 보인다. 이것은 소위 지각의 항상성(constancy)의 한 사례이다. 예

3) 한 심사자의 지적이 이 부분의 논의를 명료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Christopher Peacocke, *Sense and Content*, ch. 1.

를 들어, 방안에 있는 하얀 종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이 실외에 있는 석탄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보다 적지만 하얀 종이는 여전히 하얗게 보인다. 항상성은 우리의 지각체계가 대상에서 반사된 빛 뿐 아니라 대상의 주변에서 반사되는 빛과의 대비를 고려함을 시사해 준다. 항상성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 나무를 볼 때 당신 경험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두 나무는 높이가 비슷하다”라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한편 가까이 있는 나무가 당신의 시계(visual field)에서 보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두 나무의 높이가 다르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 동근 동전을 비스듬한 각도에서 볼 때 타원형으로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이러한 현상적인 측면도 당신 경험의 한 성질이다. 피콕은 재현주의적 내용으로 소진되지 않는 경험의 측면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위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를 브루어의 비판과 연결시키자면, 재현주의자들이 현상적 측면 또한 재현 내용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두 나무에 대해 모순되는 재현 내용을 상정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재현주의자들은 경험이 중첩된 재현 내용을 가지나 그 내용들이 반드시 동일한 대상을 재현할 필요는 없다고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이컨은 두 나무를 보는 시각 경험은 그 나무들을 비슷한 높이를 가지는 것으로 재현하지만 한편 “나무 형태”들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재현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sup>5)</sup> 이때 “나무 형태”라고 라이컨이 부르는 것은 나무와 다른 어떤 대상이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특별한 심적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마이농의 “지향적 비존재(intentional inexistent)”의 하나이다. 경험적 상태의 대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재현주의자가 지향적 비존재를 받아들인다면 브루어의 “모순된 재현내용”과 관련된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라이컨 식의 해결책은 재현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재현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상의 주어짐”을 포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대상의 주어짐은 경험이 사고와 달리 가지는 특성이다. 나는 예를 들어 상자 속의 공에 대해서 “그것은 정육면체이다”라고 잘못 생

5) William Lycan, *Consciousness and Experience*, p. 152.

각할 수 있다. 나의 생각은 비록 참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참이 아니다. 나의 생각은 실제로는 참이 아닌 어떤 사태를 재현하며 그 사태를 구성하는 그 공을 지향한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사고할 수 있다—이를 테면, “둥근 사각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참이 아닌 사태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경험에 주어질 수는 없다.<sup>6)</sup> 라이컨은 재현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험을 사고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결국 경험이 가지는 특징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라이컨의 재현주의적 해결책은 사고의 지향성과 경험의 주어짐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sup>7)</sup>

---

6) 한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은 경험에 주어질 수 없는가? 경험은 저자의 주장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은 경험에 주어질 수 없는가? 우리가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허깨비를 봤다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한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떤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봐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사실 명확하지 않으며 논평자는 여기서 어떤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이 저자의 주장대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은 경험에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전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논평자의 생각으로는 저자는 경험이 수동적(“주어진다”)이라는 것로부터 경험 대상의 실재성을 추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추론은 근거가 없다.” 필자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은 경험에 주어질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허깨비는 존재하지 않음으로 허깨비는 경험에 주어질 수 없다. 심사자도 허깨비가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허깨비를 봤다고 했을 때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보기는 했다. 여기서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다. “존재하지 않는 허깨비”가 경험에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한 선택지이다. 어두워서 막대기를 보고 마치도 뱀처럼 경험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뱀”을 보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나 그 대상이 허깨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 대상이 무엇인가? 굽타의 감각인상이 바로 그러한 존재자의 한 사례이다. (4장 참조) 그런데 감각인상은 존재하지만 세계의 궁극적인 요소들의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존재하지만 실제의 한 부분이 아닌 그런 대상을 왜 상정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굽타의 답변은 경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러한 비실재적인 존재자(unreal existent)를 상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은 실제에 대한 형이상학의 범위를 넘어선다.

7) 재현주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다른 예는 “참인 착시(fully veridical illusion)”이다. 뮐러-라이어 착시와 비슷한 상황인데 평면위의 선이 아니고 빨래 줄과 같이 허공에 고정되어 있는 두 선이 있다고 하자. 위의 선이 아래 선 보다 실제로 더 길다. 그러나 아래 선은 시선에 직각으로 놓여 저있으나 위의 선은 한쪽 끝이 다른 쪽 끝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두 선은 같은 길이로 보인다. 뮐러-라이어 착시와 같이 위의 선은 화살이 바깥쪽으로 뻗어 나가고 아래 선은 화살이 안으로 굽어 있다. 따라서 위의 선이 실제로 더 긴만큼 길게 보인다. 따라서 이 경험은 참인 재현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



브루어는 경험이 세계에 비추어 참/거짓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경험은 참/거짓을 평가해 주는 세계 그 자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고 본다. 즉, 경험은 대상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 대상의 주어짐이다. 필자는 브루어의 지적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록 재현주의에 대한 브루어의 비판이 타당하다고 해서, 브루어 자신의 이론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 III. 브루어의 대상 이론

브루어 이론이 재현 이론보다 설명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브루어는 내용 이론과 대비하여 자신의 이론을 대상 이론 (the Object View, OV)이라고 부른다. OV에 따르면 대상 자체가 경험의 주관적 성격을 최소한 부분적으로 구성한다. 브루어는 대상 이론의 역사적인 원조를 영국 경험론에서 찾는다. 경험론에 따르면 지각 경험의 성격은 그 경험에 주어질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경험론자들이 상정하였던 대상은 인상(impression)이나 관념(idea)과 같은 심적 존재들이었다. 반면, 브루어는 경험의 핵심적인 주관적 측면이 다름 아닌 경험에 주어질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은 인정하나, 마음-독립적 대상이 직접 지각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브루어의 대상 이론에 따르면 물리 대상이 지각 경험을 통해 우리의 의식에 직접 드러나며 이러한 기초적 인식론적 관계가 지각 경험을 구성한다고 본다. 따라서

---

구하고 이 경험은 여전히 착시이다. 두 선의 길이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경험의 재현내용이 세계의 사태와 우연히 맞아 떨어지긴 하나 우리가 그 사태를 지각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경험을 참으로 만드는 길이의 차이를 보지 못한다. Mark Johnston, "Better than mere knowledge? The Function of sensory awareness", p. 272. 아마 이 반례를 보고 재현주의자는 자신이 참이지만 착시인 재현의 가능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대응할지 모른다. 이 논문의 한 심사자의 지적대로 재현주의 안에 참인 재현은 착시가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을 할 경우 재현주의자는 재현 내용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왜 위 사례를 "착시"라고 할 수 있는 지를 재현주의의 틀 내에서 설명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된다. 필자의 생각엔 이 설명이 쉽지 않아 보인다.

브루어는 전통적인 경험론자들이 직면하였던 문제를—경험에 주어진 대상이 일상적인 외적 대상이 아니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일상적 외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 문제—회피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실재론의 문제는 착시나 환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물에 잠긴 막대기의 경우 그 막대기의 형태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는 빨간색 조명하에서 하얀 분필은 그 자체의 색이 우리의 의식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 분필의 하얀색을 직접 지각하지 못하며 그 색은 우리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하얀 분필 자체가 착시 경험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가?

브루어는 착시의 경우에도 여전히 물리적 대상 자체가 직접적 의식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에 잠긴 막대기의 실제 모양이나 빨간색 조명하에서 하얀 분필의 색깔이 직접적으로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물에 잠긴 막대기가 굽어보이고 빨간색 조명하에서의 하얀 대상이 빨갱게 보이는 한다는 현상적 사실이 막대기와 하얀 대상의 성질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브루어는 막대기와 분필의 어떤 다른 성질을 찾아야 한다. 브루어는 물에 잠긴 막대기에서 반사된 빛이 실제로 굽은 막대기에서 반사된 빛과 유사함을 주목한다. 물에 잠긴 막대기를 보는 경험의 주관적 측면은 그 막대기의 **관계적 성질**, 즉, 실제로 굽은 막대기와의 시각적 유사성, 에 의해 설명된다. 빨간색 조명하에서 하얀 분필을 보는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그 분필이 빨간색처럼 보이는 현상적 성질은 “정상적 조명하의 빨간색인 대상과의 시각적 유사성”에 의해 설명된다. 그 하얀 분필은 어떤 종류에 포함되며 그 종류의 대표적인 사례(paradigm case)는 정상적 조명하의 빨간색 대상이다. 그 하얀 분필은 대표적 사례와의 시각적 유사성 때문에 그 종류에 포함된다. 시각적 유사성은 우리가 대상을 볼 때의 관점이나 관찰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의된다. 그 하얀 분필은 주어진 관점이나 관찰의 상황 (빨간색 조명하에 있다는)에 상대적으로 정상조명하의 빨간색 대상과 동일한 종류에 속하게 된다. 브루어는 빨간 조명하에 있다는 상황에 상대적으로 그 하얀 대상 자체가 의식 경험에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 하얀 대상은 정상적 조명하의 빨간 대상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정상적 조명하의 빨

간 대상”이라는 술어가 적용되게 되며, 그 하얀 대상은 그 술어가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우리의 의식에 드러난다. 따라서 착시 경우에도 여전히 대상 자체의 어떤 성질이 바로 착시 경험이 가지는 주관적 성질을 설명한다. 이것이 브루어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설명에 대한 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그 하얀 분필은 빨간색 대상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빨간색 조명하에서의 하얀 물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 자체와 유사성이 있으며 빨간색 조명하에 있는 하얀 분필이 “빨간색 조명하에서의 하얀 물체”라는 술어의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언체거에 의해 만일 어떤 대상이 빨간색 조명하에서의 하얀 물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얀 물체이다. 따라서 빨간색 조명하에 있는 그 하얀 분필은 “하얗게” 보이게 된다.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정상 조명하의 빨간색 대상은 “빨간색 조명하의 하얀 물체”처럼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빨간색 조명하의 하얀 분필이 “빨간색 조명하의 하얀 물체”의 대표적 사례일 수 있고, 정상 조명하의 빨간색 대상이 그 대표적 사례와의 시각적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성의 대칭성에 의해) 결국 빨간색 대상이 “빨간색 조명하의 하얀 물체”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연언체거에 의해 정상 조명하의 빨간색 대상이 “하얗게” 보인다!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이다.<sup>8)</sup>

브루어는 현상에 대한 두 종류의 구분을 통해 이러한 반박에 대응하려고 한다. 얇은(thin) 의미의 현상은 비인지적 의미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O가 얇은 의미에서 F처럼 보인다 = O는 직접 지각의 대상이며 지각되는 관점과 상황에서는 O가 대표적으로 F인 대상들과 지각적인 유사성을 가진다.<sup>9)</sup>

애매한 그림의 유명한 사례인 오리-토끼 그림은 얇은 의미로 “오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토끼”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오리-토끼 그림을 볼 때 그 그림이 직접 지각의 대상이며, 주어진 관점에서 그 그림은 오리

8) Bill Brewer, *Perception and its Objects*, p. 125.

9) Bill Brewer, “Perception and its objects”, p. 94.

와 지각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한 토끼와 지각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얇은 의미에서 O가 F처럼 보이지만 두꺼운 의미에서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

O가 두꺼운 의미에서 F처럼 보인다고 = O가 얇은 의미에서 F처럼 보이고, 또한 주체가 O를 F로서 간주해야만 한다.

얇은 의미의 현상은 개념적 활동을 포함하지 않고 따라서 어린 아기나 동물들과 같이 개념적 능력이 결핍된 개체들에게도 부여될 수 있는 반면, 두꺼운 의미의 현상은 대상을 범주화하는 개념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두꺼운(thick) 의미로는 O가 어떤 주체에게 단 하나의 방식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 즉, 오리-토끼 그림을 오리 그림으로서 파악하거나 혹은 토끼 그림으로서 파악하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현재 당신이 그 그림을 토끼로서 파악하고 있다면 동시에 그 그림을 오리로서 파악할 수는 없다. 브루어는 “~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이 얇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통상 두꺼운 의미로 사용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얇은/두꺼운 현상의 구분이 위에서 제기된 반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제공하는가? 아마 브루어는 일단 빨간 조명하의 하얀 분필이 얇은 의미로 “빨강계” 보이기도 하고 “빨간 조명하의 하얀 대상”으로 보이기도 함을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하얀 분필이 얇은 의미로 “빨간 조명하의 하얀 대상”으로 보인다는 사실로부터 그것이 얇은 의미로 “하얀” 대상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빨간 조명하의 하얀 대상도 하얀 대상이긴 하지만 전자의 대표적 사례가 반드시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F&G의 대표적 사례가 반드시 F의 대표적 사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O가 얇은 의미에서 F&G처럼 보인다고 해서 F처럼 보인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브루어는 빨간 조명하의 하얀 분필이 하얗게 보인다는 당혹스러운 결론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두꺼운 의미의 경우는 어떠한가? 브루어는 두꺼운 의미로도 빨

간 조명하의 하얀 분필이 “빨간 조명하의 하얀 대상”처럼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만일 우리가 전반적으로 빨간 조명하에 있는 다양한 색의 샘플들 중에서 하얀색 샘플을 고르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을 때 하얀색 샘플은 “빨간 조명하의 하얀 대상”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두꺼운 의미의 경우에는 주체가 그 샘플은 “빨간 조명하의 하얀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O를 F&G로 간주할 경우, 그 사람은 연언제거를 사용하여 O를 F로 간주할 수 있다. 브루어는 빨간 조명하의 하얀 분필이 “하얗게”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하다. 즉, 두꺼운 의미에서 그것은 하얗게 보인다.

빨간 조명하의 하얀 분필이 과연 진정으로 현상적으로 하얗게 보일 수 있는가?<sup>10)</sup> 이러한 의문에 대해 브루어는 위의 결론이 대상 이론에 대한 반례가 아니고 오히려 대상 이론을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대상 이론에 따르면 경험의 중심적인 주관적 성질은 대상에 의해 결정되나 인지적 활동의 결과 추가적인 현상이 생성될 수 있음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뭉게구름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의 형태가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 뭉게구름이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이 진정으로 변화하였다. 브루어는 이 또한 현상적인(phenomenological) 변화라고 인정하며 자신의 대상 이론이 이러한 현상적 변화를 수용해 드릴 수 있다고 주장

10) 한 심사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붉은 빛이 도는 조명 속에서 흰색 물건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찾은 흰색 물건은 실제로 희게 보일 수 있다. 그는 옆에 있는 동료에게 “이게 흰색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는 이 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그가 찾은 물건이 하얀 물건과 어떤 시각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얀 물건은 정상 조명하에서 검은 물건에 비해 밝게 보이는데 이는 붉은 조명하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실 그가 붉은 조명 하에서도 하얀 물건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얀 물건이 갖는 시각적 특징 때문이다.” 붉은 조명하에서 하얀 물체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하얀 물체와의 시각적 유사성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하얀 물체를 찾아내는 인지 능력을 설명해주는 것은 시각적 유사성이라기보다는 하얀 물체와의 시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인지가 자신이 현재 붉은 조명하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대상이 하얀 색임을 추론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얀 물건과 검은 물건의 대비에 착안하여 붉은 조명하에서도 하얀 물건을 찾아 낼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반드시 하얀 물건이 하얗게 보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에 잠긴 막대기를 보고 착시 현상임을 고려하여 그것이 직선임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해서 물에 잠긴 막대기가 직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다. 두꺼운 의미의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뭉게구름의 경우와 하얀 분필의 경우가 서로 유사한지는 의문스럽다. 뭉게구름의 경우는 진정한 현상적 변화라고 할 수 있으나 빨간 조명하의 하얀 분필이 하얗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보다 심각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두꺼운 의미에서의 현상에 대한 브루어의 정의에 따르면, 두꺼운 의미의 현상은 얇은 의미의 현상을 함축한다. 즉, 만일 O가 두꺼운 의미에서 F처럼 보이면 O는 얇은 의미에서도 F처럼 보여야 한다. 따라서 브루어가 빨간 조명하의 하얀 분필이 두꺼운 의미에서 하얗게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분필은 얇은 의미에서도 하얗게 보여야 한다. 그 분필이 얇은 의미에서 하얗게 보인다는 것은 정의에 의해 다시 그 분필이 하얀 대상과 시각적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시각적 유사성은 다시 “그것으로부터 반사된 빛이 정상적 조명하에서의 대표적 사례들로부터 반사된 빛들과 유사하다”로 이해된다.<sup>11)</sup> 따라서 빨간 조명하의 하얀 대상이 얇은 의미로 하얗게 보인다는 것은 그것에서 반사된 빛이 대표적으로 하얀 대상들이 정상적 조명하에서 반사하는 빛들과 유사하다는 것인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직접적 실재론 내에서 착시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물론 브루어는 직접적 실재론을 포기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직접적 실재론을 포기하되 대상 이론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보다 만족스러운 대안을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 다음 장의 관심사이다.

#### IV. 대상 이론의 수정

브루어의 접근이 가지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장에서 지적하였듯이 재현주의에 대한 브루어의 비판은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 세계에 의해 참, 거짓이 결정되는 재현(representation)을 제공함이 경험의 전부가 아니다.

11) Bill Brewer, “Perception and its objects”, p. 92.

물론 이 말이 경험이 재현 내용이 없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단지 재현 내용이 경험이 가지는 특성의 전부가 아니며 오히려 경험의 특별함은 재현의 참/거짓을 평가할 수 있는 세계의 장을 제공하는 데 있다. 즉, 경험은 대상의 주어짐 또는 현존(presentation) 그 자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접적 실재론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현주의와 비교하여 직접적 실재론이 가지는 올바른 점을 존중하되 브루어의 접근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sup>12)</sup>

필자는 그 한 해결책을 굽타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브루어의 직접적 실재론과 달리 굽타는 현존하는 대상을 물리적 대상에 국한하지 않는다. 굽타 이론의 핵심은 감각인상(sense-image)라는 대상의 도입에 있다.<sup>13)</sup> 감각인상은 마음-의존적이라는 점에서 감각소여(sense-data)와

12) 한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굽타의 이론이 브루어의 대상 이론이 갖고 있는 올바른 직관을 보존하면서도 그와 같은 대상 이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굽타의 이론을 중요한 의미에서 브루어류의 대상 이론과 같은 유형의 이론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브루어의 대상 이론은 “직접 지각의 대상은 마음-의존적이다”라는 주장을 거부하는 이론이지만, “경험에 현존하는 대상이 경험의 주관적, 현상적 성질을 구성한다.”는 굽타의 논제는 “직접 지각의 대상은 마음-의존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중립적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경험에 주어짐이 대상의 실재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굽타의 이론을 브루어류의 대상 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론으로 볼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의 이론은 “오직 마음에 의존적인 요소들만이 의식에 현존할 수 있다”는 견해와도 양립하기 때문이다.” 이 지적의 핵심은 브루어의 대상 이론은 “직접 지각의 대상은 마음-의존적이다”라는 주장을 거부하는 이론이지만, 반면 굽타의 이론은 그 주장과 양립가능함으로 따라서 굽타의 이론은 직접적 실재론이 아니고 따라서 굽타의 이론이 직접적 실재론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적의 문제는 마지막 추론에 있다. 브루어의 직접적 실재론은 대상 이론의 한 양상이다. 감각소여이론은 위의 주장과 양립가능할 뿐 아니라 바로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소여이론은 대상 이론의 틀 내에서 직접적 실재론의 한 대안이다. 물론 필자는 브루어, 굽타와 더불어 감각소여이론이 “유효한”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굽타의 이론은 대상 이론의 틀 내에서 직접적 실재론도 아니고 감각소여이론도 아닌 제 삼의 대안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세 가지 선택지들은 중요한 의미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그들 모두 대상 이론에 속한다.

13) Anil Gupta, “An Account of Conscious Experience”, p. 3. 굽타 이론의 성격에 대해 한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로 드는 의문은, 굽타의 이론이 과연 대상 이론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는가이다. 굽타의 2012년 논문 “An Account of Conscious Experience”의 핵심적인 논지는, 자신의 이

유사하다. 그러나 감각소여는 실재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존재로 간주된 반면 감각인상이라는 대상은 비실재적(unreal)이다. 비실재적인 대상의 사례로서 굽타는 거울의상이나 무지개를 예로 든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에 난 여드름을 보고 철수가 “저것이 어제는 없었다”라고 할 때, 철수는 자신의 여드름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혹은 거울 자체에 누가 크레용으로 무엇을 그려 놓았을 경우 철수가 “저것이 어제는 없다”고 할 때, 그는 거울 위의 크레용 자국을 지칭할 것이다. 거울의 멧힌 상은 거울에 있지도 않고 거울 주변 환경에 있지도 않다. 거울의 상은 거울 또는 주변 환경의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안에 존재하는 실재라고 보기도 어렵다. 두 사람이 공히 동일한 거울의 상을 볼 수 있다. 거울의 상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거울의 상을 제거해 버리고 난다고

---

론이 경험적 합리성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지, 의식적 경험의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사자의 지적대로 굽타는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에 대해 주목해 왔으며 그의 인식론적 작업의 결실이 *Empiricism and Experience*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위 논문에서 굽타는 경험의 본성, 특히, 경험의 주관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경험의 주관적 성질이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결정한다는 것은 인식론적 논제이다. 반면, 위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경험의 주관적 성질이 현존 복합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심사자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래서 그의 이론은 “오직 마음에 의존적인 요소들만이 의식에 현존할 수 있다”는 견해(Thesis A)와도 양립한다. 그리고 감각-인상과 같은 비실재적 대상을 용인하는 자신의 자유주의적 도식(liberal scheme)은 단지 실재에 관한 합리적 토론을 수행하기 위한 틀/framework일 뿐이지, 실재에 관한 설명을 위한 틀이 아님을 지적한다.” 양립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문장은 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굽타의 이론이 형이상학적 이론이 아닌 것은 아니다. Thesis A는 경험의 본성에 대한 한 형이상학적 이론일 수 있다. 물론 굽타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에 주어진 것이 반드시 실재(real)하는 가라는 질문과 경험의 주관적 성질의 본성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은 구분되어야 한다. 비실재적 대상을 경험의 대상으로 도입한다고 해서 굽타의 경험이론이 하나의 형이상학적 이론-경험의 주관적 성질의 본성에 대한 -임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물론 굽타의 이론이 전통적 의미의 형이상학적 이론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굽타는 경험의 궁극적인 본성은 과학적 탐구에 남겨져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험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 이론의 타당성도 결국 경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고 따라서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즉, 경험이 인식론적 역할을 가지기 위해 경험이 어떠한가 하는 가에 대한 이론은 경험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론보다 선행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형이상학적이다. 형이상학은 반드시 실재의 궁극적 모습뿐 아니라 실재에 대한 이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의 구조에 대한 탐구를 포함할 수 있다.



해도 철수의 경험, 거울, 빛, 그리고 주변 대상들 그 어느 것도 결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의 상이 존재하기는 한다. 만약 거울의 상이 없다면 철수는 자기 얼굴의 여드름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거울의 상은 비실재적이거나 존재한다. 무지개도 대기 중의 물 입자들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대기 중에 색 물감을 뿌려 놓은 상태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가 있다. 없다면 아이가 그것을 잡으려 떠날 수도 없을 것이다.

감각인상도 거울의 상과 무지개처럼 세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있기는 한 대상이다. 감각인상을 상징함으로서 얻는 소득이 무엇인가? 그것은 경험의 주관적 성질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크기가 다른 파란색의 두 디스크,  $d_1$ ,  $d_2$ 가 있다고 해보자.  $d_1$ 은 착시 때문에 푸르게 보이고 반면  $d_2$ 는 원래대로 파랗게 보인다고 해보자. 이때 경험에 현존하는 대상을 무엇인가? 우선  $d_1$ ,  $d_2$  그 자체 둘 다 현존한다. 그 외에도 둥근 성질 또는  $d_1$ 의 둥글음,  $d_2$ 의 둥글음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d_2$ 의 파란색은 현존한다. 그런데  $d_1$ 이 푸르게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당연히  $d_1$ 의 파랑은 도움을 주지 않으며, 따라서  $d_1$ 의 파랑은 현존하지 않는다.  $d_1$ 이 푸르게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푸른 감각인상,  $s_1$ , 이다.  $s_1$ 은  $d_1$ 에 대한 감각인상이며( $s_1$  is of  $d_1$ ) 이 덕분에  $d_1$ 이 푸르게 보인다. 굽타는 현재경험의 현상적 성질을 결정해주는 현존 대상들과 그것들의 성질들의 총체를 현존 복합체(presentational complex)라고 부른다. 위의 예에서 현존복합체는  $d_1$ ,  $d_2$ ,  $s_1$ 과 그것들의 성질과 관계들로 구성된 집합이다.

둥근 동전을 비스듬히 볼 경우 그것이 분명 타원형으로 보이긴 한다. 이때에도 둥근 동전 외에 타원형의 감각인상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위 지각의 상대성 현상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브루어가 주목하는 착시 현상의 경우도 감각인상을 도입할 수 있다. 이를 테면, 밀러-라이어의 착시는 길이가 다른 두 감각인상이 상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각 경험에도 비실재적 대상, 감각-인상이 현존할 수 있다. 뱀을 환각할 경우 나는 “저것은 뱀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나의 언명은 분명 무엇인가를 지칭한다. 비록 실제 뱀에 없으나 나의 언명이 지

시하는 대상은 감각인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언명은 거짓이 된다. 감각인상은 환각 경험에서 우리가 하는 언명의 진리치가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감각인상은 비실재적이나 논리적, 의미론적 목적을 위해 상정된 존재이다.

굽타의 이론은 브루어류의 직접적 실재론에 기반을 둔 대상 이론이 봉착하는 문제를 손쉽게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반론들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동일한 대상이 여러 다른 경험에 현존할 수 있다는 굽타의 주장을 살펴보자.

짧은 쇠막대기가 당신의 왼쪽 손바닥에 놓여져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그 막대기와 그것의 끝은 형태는 시각과 촉각 경험에 현존한다. 만일 당신이 눈을 감는다면, 시각적 감각인상은 사라지고 시각적 현상은 없어지지만 그 막대기와 형태는 여전히 당신의 경험에 현존한다. 마찬가지로 손이 마비될 경우 촉각적 현상은 사라지나 그 막대와 형태는 여전히 경험에 현존한다.<sup>14)</sup>

여기서 굽타는 현존 복합체로서 {쇠막대기 자체, 시각적 감각인상, 촉각적 감각인상}을 상정하는 것 같다. 눈을 감을 때 시각적 경험의 사라짐은 시각적 감각인상의 사라짐으로 설명되고 쇠막대기 자체는 여전히 촉각 경험의 현존 복합체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렇게 현존 복합체를 상정할 경우 현존에 관해 굽타가 받아들이는 한 원칙과 상충하는 것 같다.

굽타는 경험에 현존하는 모든 요소들이 경험의 현상적 측면을 결정하는데 기여하며 한 경험의 현존 복합체 내에 포함되는 어떤 요소도 **인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sup>15)</sup> 만일 비인여성 원칙을 받아들일 경우, 쇠막대기를 보고 있을 때 쇠막대기와 시각적 감각인상이 둘 다 존재하는 것은 인여적이지 않느냐? 물론 착시나 환각이 아닌 참인 지각의 경우에도 지각의 상대성 때문에 물리대상이외에도 감각인상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다. 쇠막대기와 감각인상이 쇠막대기를 보는 시각경험의 현상적 성질을 결정한다고 하자. 굽타는 눈을 감을 때

14) Anil Gupta, *ibid*, p. 15

15) Anil Gupta, *Ibid.*, p. 13.

감각인상이 사라지고 따라서 시각적 현상이 소멸된다고 주장한다 (쇠막대기는 눈을 감고 촉각만 있을 때의 전체 경험의 현존 복합체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애당초 쇠막대기의 시각 현상적 기여가 무엇인가? 쇠막대기는 분명 어떤 현상적 기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쇠막대기는 잉여적이다. 만일 쇠막대기가 어떤 현상적 기여를 한다면, 감각인상의 소멸이 시각적 현상의 전체의 소멸을 가져올 수는 없다. 그러나 눈을 감을 경우 시각적 현상은 완전히 사라진다.<sup>16)</sup>

이 문제에 대해 굽타는 아마 다음과 같이 반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쇠막대기를 보는 경험의 현존 복합체를 K라고 했을 때, 쇠막대기를 K로부터 제거한 현존 복합체를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을 K'라고 하자. 만일 K'를 현존 복합체로 가지는 경험이 있어 그것이 쇠막대기를 보는 경험과 주관적으로 동일하다면 이는 비잉여성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반적으로 K'를 현존 복합체로 가지는 경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참인가? 아마 쇠막대기를 보는 것 같은 환각 경험이 바로 그러한 경험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쇠막대기를 보는 환각 경험에 현존하는 감각인상이 바로 쇠막대기를 실제로 보는 경험의 현상적 성질을 모두 설명하는가? 반드시 그

16) 이 반론에 대하여 한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렇지만 위 비판은 굽타의 견해를 잘못 이해한 듯 보인다. 굽타에 따르면, 의식적 경험에 현존하는 비실재적 요소들(unreal items)의 범주는 다양하다. 예컨대, 비실재적 요소는 대상(object)일 수도 있고, 속성(property)일 수도 있고, 사건(event)일 수도 있다. 이제 어떤 파란색 쇠막대기가 지각의 상대성 때문에 의식적 경험 속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의식적 경험의 요소에는 그 쇠막대기와 초록색 감각인상이 현존한다. 이 경우 쇠막대기는 실재적 요소(real item)로서 의식적 경험 속에 현존하고, 초록색은 비실재적 요소(unreal item)로 현존한다. 따라서 쇠막대기가 대상으로서 현존하면서, 동시에 쇠막대기의 감각인상이 대상으로서 현존함으로써 잉여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므로, 굽타의 비잉여성 원칙에 대한 비판은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란색 쇠막대기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경험에 대한 심사자의 분석은 굽타의 이론을 잘 반영하고 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경험은 초록색 감각인상에 의해 설명되나 이를 데면 쇠막대기의 크기에 대한 경험은 쇠막대기 자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굽타가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시각적 현상성은 소멸되고 이 소멸을 시각적 감각인상의 소멸로 설명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애당초 쇠막대기 자체가 시각적 현상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었는가? 물론 필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논의를 참조할 것) 단지 굽타의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 문제 상황이 있음을 지적할 뿐이다.

렇다고 볼 수 없다. 환각경험에서는 물론 감각인상이 그것의 주관적 성질을 설명하지만 동일한 주관적 성질이 참인 지각의 경우에는 감각인상과 실제 물리 대상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다. 즉, 동일한 주관적 성질에 대한 다양한 현존 복합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반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불편한 직관이 남는 것 같다. 위에서 우리가 고려한 경우는 K로부터 쇠막대기를 제거하고 남은 결과인 K'가 아니라 K로부터 시각적 감각인상들을 제거한 K''이었다. 그리고 K''를 현존복합체로 가지는 경험은 시각적 현상성을 결여하고 있다. 감각인상들의 제거로 인하여 시각적 현상성이 소멸되었다면 결국 애당초 쇠막대기 자체는 아무런 현상적 기여를 못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쇠막대기 자체는 잉여적이지 않은가? 이것이 의문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초해 있다.

\*감각인상들의 제거로 인하여 시각적 현상성이 소멸되었다면 시각적 현상성은 오로지 감각인상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런데 이 가정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 만일 애당초 시각적 현상성이 감각인상과 쇠막대기의 연합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그 연합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만 제거하더라도 시각적 현상성은 소멸할 것이다. 즉, 위의 가정은 감각인상과 쇠막대기가 서로 독립적으로 현상성의 결정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굽타는 현존 복합체가 현상성을 결정하는 방식은 오로지 선형적(linear)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거부할 수 있다.<sup>17)</sup>

17) 오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들 중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고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고 하자.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들리지 않는 소리도 들리는 소리와 같이 있을 경우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경험에 미세하나 현상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음악을 들을 때의 현상성은 들리는 소리와 들리지 않는 소리가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만일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현존 복합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뒷받침해주는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들리는 소리들을 모두 제거할 경우 청각적 현상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음악을 듣는 현상성에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잉여적이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각적 감각인상을 제거할 때 시각적 현상성이 소멸된다고 해서, 쇠막대기가 시각적 현상성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위의 오디오 사례는 자칭 오디오광이라는 신상규 교수와

지금까지 비잉여성원칙에 기반을 둔 한 가능한 반론을 고려하였다. 아마 굽타의 이론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불만은 감각인상과 같은 대상을 경험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향해져 있을 것이다. 이 반론을 다음 장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겠다.

## V. 대상의 현존과 인식

우리는 “대상 O가 의식 경험에 주어져 있다 또는 현존한다(presented)”라고 말할 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셀라스의 유명한 구분에 따르면 경험이 가지는 두 가지 다른 지향성들이 있다. 첫 번째 지향성은 경험이 명제적 내용 특히 개념적 내용을 가짐으로서 가지는 지향성이다. 두 번째 지향성은 경험이 개념의 도움 없이 외부 대상과의 규칙적인 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지향성이다. 빨강의 경험은 통상 빨강색이 있을 때 촉발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경험이 빨강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지향성은 인식론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이 셀라스의 주장이며 인식론적으로 다른 함의를 가지는 두 지향성의 구분을 혼동할 때 소녀의 신화(the myth of the given)에 빠지게 된다고 진단한다.<sup>18)</sup> 그렇다면 대상의 현존은 어떤 지향성인가?

브루어의 경우 현존은 인식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현존은 실재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 의식을 의미한다. 이를 러셀의 견해라고 부르자. 러셀 또한 경험에 주어짐을 인식적으로 특별한 관계, 실재에 대한 확고한 파악(그가 “직접 의식에 의한 지식(knowledge by acquaintance)”이라고 불렀던)으로 간주하였다.<sup>19)</sup> 그리고 직접 의식에 의한 지식은 언어와 세계를 연결하는 확실한 토대를 제공한다. 언어와 사고의 내용은 이러한 특별한 연결을 통해 확보된 내용으로부터 파생하게 된다. 러셀은 직접 의식의 인식론에

---

의 대화에서 발췌하였다. 물론 신 교수는 오디오 사례의 실제적인 가능성과 현재 문맥에서의 적용가능성 여부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18) Wilfrid Sellars, *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 §§7.

19) Bertrand Russell, *The Problems of Philosophy*, p. 46.

기반을 두고 의미론적 토대론을 옹호한다.

기술들을 포함하는 명제의 분석에 있어 근본적인 원리는 이것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명제는 우리가 직접 의식하는 요소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sup>20)</sup>

브루어는 러셀을 따라 지시(reference)는 오로지 지시하는 주체가 비추론적, 직접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대상에 국한된다는 제약을 받아들인다. 이는 브루어와 러셀의 공통전제이다. 그런데 러셀은 비추론적, 직접 의식은 오로지 감각소여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러셀은 논리적인 의미의 고유명사는 감각소여를 지시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명제는 궁극적으로 감각소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브루어는 직접 의식의 대상이 감각 소여에 제한된다는 러셀의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에 브루어와 러셀의 차이점이 있다. 브루어가 러셀의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파생되는 문제들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캠벨의 다음 글에서도 드러난다.<sup>21)</sup> 주체의 주관적 삶을 구성하는 의자를 “주관적 의자”라고 해보자.

우리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의자”는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그 역사가 알려져 있지 않고 쿠션아래 잊혀진 많은 물건들이 존재하는 일상적 의자와 너무나 다른 존재처럼 보인다. “주관적 의자”와 일상적 의자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제들은 너무나 심각하여 우리는 결국 관념론을 받아들이고 일상적 의자를 완전히 포기해 버리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캠벨과 브루어는 직접 의식의 인식론/의미론적 함축에 관한 러셀의 견해는 받아들이지만 러셀의 제한은 부정한다.<sup>22)</sup>

20) Bertrand Russell, *ibid.*, p. 58.

21) John Campbell, “Consciousness and Reference”, p. 656.

22) 캠벨과 브루어 이외에도 에반스의 접근이 넓게 보아 러셀의 의미론적 토대론을 부활하려는 최근 접근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셀의 견해가 타당한가? 경험 자체가 혹은 경험만으로 실제 존재에 대한 지식을 보장해 줄 수는 있는가? 그 답은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세계의 여러 다양한 가능성들과 양립가능하기 때문이다. 곱타는 이를 경험의 “복수분할 가능성(multiple-factorizability) 논제”라고 부른다.<sup>23)</sup> 파란색을 보는 것 같은 나의 현재경험은 실제로 파란 물리 대상을 정상적인 조명하에서 보는 것, 하얀색을 파란 조명하에서 보는 것,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하얀색을 보는 것, 파란 감각소여를 보는 것, 등등의 가능성과 양립가능하다. 내가 경험을 통해 “파란 공이 있다”라는 믿음을 정당하게 믿기 위해선 나의 지각과정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배경 믿음이 정당해야 한다.

따라서 경험 자체가 세계의 사실을 인식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복수분할 가능성 논제에 대한 한 비판은 그 논제는 현존의 대상을 감각소여로 국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경험이 세계의 여러 상황과 양립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경험의 주체는 내부에 주어진 자료로부터 외적 세계를 추론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을 함축하지 않는가? 즉, 복수분할 가능성 논제는 결국 우리의 경험에 주어진 대상은 감각자료나 인상들뿐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수분할 가능성은 외적 물리 대상이 경험에 현존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는다. 경험의 주관적, 현상적 성질이 외적 물리 대상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그러한 주장을 옹호하면서 팀 크레인인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체의 관점에서는 경험은 ‘세계로의 열림’인 것 같다: 경험의 주관적인 성질은 부분적으로 경험의 대상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경험의 주관적 성질이 어떠냐 하는 것은 경험할 때의 경험의 대상이 어떠냐 하는 것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sup>24)</sup>

만일 ‘세계로의 열림’이 이와 같이 이해된다면, 복수분할 가능성 논제는

23) Anil Gupta, *Empiricism and Experience*, p. 5.

24) Tim Crane, “Is There a Perceptual Relation?”, p. 134

세계로의 열림과 충분히 양립가능하다. 나의 의식에 현존하는 물리적 대상에 의해 나의 경험의 주관적 성질이 결정될 수 있다. 복수분할 가능성은 단지 역방향으로의 결정을 부정할 뿐이다. 즉, 주관적 성질이 역으로 바로 그 물리적 대상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참인 지각의 주관적 성질은 환각을 하고 있음으로서 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감각소여 또한 경험에 현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바로 그 감각소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비록 감각소여가 한 가지 방식으로 밖에 경험될 수 없다고 해도 그 한 가지 방식의 경험은 감각소여의 부재와 양립가능하다. 즉, 동일한 감각소여가 여러 다른 방식으로 경험될 수는 없으나, 주어진 경험이 반드시 감각소여의 존재를 필하지는 않는다.

복수분할 가능성 논제를 받아들이고 현존의 특별한 인식론적 함의를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는 경험에 현존하는 대상이 감각소여와 같이 주관적 대상에 국한된다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물리 대상이 경험에 현존할 수 있다. 문제는 현존이 반드시 실재하는 대상에 국한된다는 즉, 현존이 특별한 인식론적 위상을 가진다는 가정에 있다. 감각소여의 실재성을 받아들이는 러셀에 따르면 감각소여의 존재에 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책상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존재하는지 의심할 수 있지만 책상에 대한 감각소여를 지각하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심이 개입할 논리적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러셀은 직접 의식을 대상을 감각소여에 제한한 것이다. 반면 직접적 실재론자들은 감각소여와 같은 대상들의 실재성에 대해 부정적이며 따라서 그러한 대상들을 도입하지 않고 자신들의 실재론적 형이상학의 틀 내에서 경험의 현상적 성질을 설명하려고 한다. 비록 실재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대한 생각은 달랐으나 브루어는 현존은 실재와의 인식적 대면이라는 러셀의 견해를 계승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인식론/의미론을 존재론적 목적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있다. 물론 우리의 인식적 실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재의 모습에 다가가는 데 있다. 그리고 경험이 그러한 목적에 기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험에 과도한 인식론적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존을 특별한 인식론적 관계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존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대상들의 실재성을 의심한다고 해서 그 대상들이 경험에 현존할 수 있음을 반드시 부정할 이유가 없다. 현존은 반드시 실재와의 대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굽타가 그의 이론에서 현존을 비실재적인 감각인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VI. 결론

브루어의 대상 이론은 올바른 직관을 담고 있다. 경험의 주관적 성질을 분석함에 있어 대상의 현존은 심각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는 정상적 경험 뿐 아니라 착시나 환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직접적 실재론의 틀 내에서 착시 경험을 분석하려는 브루어의 시도는 문제점이 있으며 불만스럽다. 따라서 브루어의 대상 이론의 핵심적 직관을 보존하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현존과 인식적 의식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만일 어떤 대상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도 대상의 실재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브루어는 착시현상에서도 그가 실재한다고 보는 물리 대상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브루어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러셀의 계승자들이 극복해야 할 러셀의 진정한 문제점은 감각소여이론이 아닌 현존에 대한 특정한 가정이다. 대상 이론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설명적 소득을 가로 막고 있었던 가정이 바로 현존에 대한 인식론적 해석이며 굽타는 바로 그 해석을 거부함으로써 대상 이론의 틀 내에서 착시와 환각을 포함한 경험 일반의 주관적 성질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존에 대한 비인식적 해석: 경험에 주어짐이 대상의 실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sup>25)</sup>

25) 현존에 대한 비인식적 해석은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굽타의 이론은 다음 두 주장에 기반 해 있다. (i)현존 복합체가 경험의 주관적, 현상적

경험에 주어짐이 대상의 실재성을 보장해 주지 않음으로 따라서 굽타의 이론과 같이 비실재적인 대상들이 경험에 현존할 여지가 생긴다.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굽타는 대상 이론을 새롭게 옹호하려고 한다.

\*대상 이론: 경험에 현존하는 대상이 바로 경험의 주관적, 현상적 성질을 구성한다.

물론 굽타의 이론에 대하여 위에서 논의된 반론들 외에 다른 반론들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려된 사항들만을 놓고 볼 때 굽타의 이론은 대상 이론의 틀 내에서 한 유효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투 고 일: 2013. 04. 05.

심사완료일: 2013. 04. 29.

게재확정일: 2013. 04. 30.

**윤보석**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성질을 결정하고 (ii)경험의 주관적 성질은 다시 경험의 인식론적 기여를 결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i)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ii)는 (i)과 양립가능하다. 따라서 현존에 대한 비인식적 해석이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 물론 (ii) 자체가 참인지는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이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 참고문헌

- Brewer, Bill, 1999, *Perception and Reason*, Oxford University Press.
- Brewer, Bill, 2007, “Perception and its objects”, *Philosophical Studies*, 132: 87-97.
- Brewer, Bill, 2011, *Perception and its Objects*, Oxford University Press.
- Byrne, Alex and Logue, Heather, 2008, “Either/Or”, in Adrian Haddock and Fiona Mcpherson (eds), *Disjunctivism: Perception, Action, Knowledge*, Oxfo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John, 2002, *Reference and Consciousness*, Oxfo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John, 2009, “Consciousness and Reference”, in Brian McLaughlin, Ansgar Beckermann and Sven Walter (eds.),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of Mi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vans, Gareth, 1982, *The Varieties of Reference*, Oxford University Press.
- Gupta, Anil, 2006, *Empiricism and Exper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 Gupta, Anil, 2012, “An Account of Conscious Experience”, *Analytic Philosophy* Vol. 53 No. 1.
- Jackson, Frank, 1977, *Percep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ton, Mark, 2006, “Better than Mere Knowledge? The Function of Sensory Awareness”, in Tamar Gendler and John Hawthorne (eds.), *Perceptual Exper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 Lycan, William, 1996, *Consciousness and Experience*, The MIT Press.
- McDowell, John, 1994, *Mind and Worl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Dowell, John, 2008, “The Disjunctive Conception of Experience as Material for a Transcendental Argument”, in Adrian Haddock and Fiona Mcpherson (eds), *Disjunctivism: Perception, Action, Knowledge*, Oxford University Press.
- Russell, Bertrand, 1912, *The Problems of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 Sellars, Wilfrid, 1997, *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right, Crispin, 2008, “Comments on John McDowell’s ‘The Disjunctive Conception of Experience as Material for a Transcendental Argument’”, in Adrian Haddock and Fiona Mcpherson (eds), *Disjunctivism: Perception, Action, Knowledge*, Oxford University Press.

## ABSTRACT

## Direct Realism and Illusion

Yoon, Bo-Suk

Bill Brewer, in his recent publications, has given an account of illusion within the framework of direct realism. In particular, he defends the Object View against the Representationalist View. His account, if successful, would make it unnecessary to posit entities such as sense-data for explaining illusion and thus prevent the notorious epistemological problems with the sense-datum theory. Unfortunately, however, there are serious shortcomings with his account. In the first half of the paper, I describe the background and problems of Brewer's account. In the second half, drawing from the works of Anil Gupta, I defend an alternative account of experience that saves what is right about Brewer's account, and at the same time, bypass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Brewer's account.

**Keywords:** illusion, direct realism, experience, object, Brewer, Gupta

